



오늘의 말씀 - 토 (출 6-2-13)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본문 이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그대로 전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들어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적용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내고, 그 고역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하시며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라” (2, 6, 8)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전능의 하나님”(3)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심해진 애굽의 학대로 인해 그 마음이 지쳐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인 모세로 인해 화가 나 있었기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모세대로 자신의 설득력 없는 입술을 자책하며 (12)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 이르십니다.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하신 격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반응도 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12)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

다는 뜻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출애굽의 대장정으로 꼭 차 있는 반면, 인간의 생각에는 원망과 불평과 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생각대로 출애굽은 이루어질 텐데, 애초에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췄더라면 출애굽의 과정이 얼마나 신나고 박진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살 수만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순조롭고 행복할까요?

기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 순조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주일 말씀: 욥 3:1-3 말씀대로 가니라)